

고 있으며 특히 음성 자체의 質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저자들은 애성을 주증상으로 하는 후두질환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고자 1980년 1월부터 1982년 12월까지 만 3년간 애성을 주증상으로 본교실 이비인후과 외래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임상통계적 결과를 얻었다.

1) 이비인후과 외래 신환 총 10110명중 애성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는 228명으로 약 2.3%였다.

2) 애성환자 228명중 남자는 115명, 여자는 113명으로 남녀비는 거의 비슷하였다.

3) 원인질환 별로는 급성후두염이 43예(18.9%)로 가장 많았으며 만성후두염 36예(15.8%), 성대결절 30예(13.2%), 후두폴립 30예(13.2%), 성대마비 26예(11.4%), 후두악성종양 18예(7.9%) 및 후두결핵 15예(6.6%)의 순이었다.

기타 후두질환들로는 30예로 13.2%를 차지하였다.

4) 연령별 빈도는 40대에서 26.8%로 가장 많았고 30대 18.9%, 50대 17.1%, 20대 15.8% 및 60대 9.6%의 순이었다.

5) 발병부터 초진까지의 기간은 11일~1개월(22.8%)이 가장 많았으며 1개월~3개월(19.7%), 3개월~6개월(18.9%), 10일 이내(13.6%), 6개월~1년(13.2%), 1년~3년(7.9%) 및 3년이상(3.9%) 순이었다.

6) 각질환에 따른 발병부터 초진까지의 최다기간은 급성후두염이 10일 이내, 만성후두염은 3개월~6개월, 성대결절은 1개월~3개월, 후두폴립은 3개월~1년, 성대마비는 11일~1개월, 악성암은 3개월~1년 및 후두결핵은 11일~1개월 등이었다.

7) 애성과 동반하여 나타나는 증상들로는 인두통이 2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객담 8.8%, 연하운동장애 7.9%, 기침 6.6%, 호흡곤란 6.1% 순이었으며 애성만을 호소했던 경우는 84예로 36.8%를 차지하였다.

- 9 -

### 식도이물에 의한 식도천공 1예

전복의대

홍기환 · 조규모 · 송기준

식도천공은 임상에서 특히 이비인후과영역에서 드

물게 보는 질환으로서 여러가지 중요한 합병증을 야기하는데 그것은 식도 주위에 대한 해부학적 관계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긴급을 요하며 사망률도 높다.

식도천공의 원인은 대부분 외부손상, 기계적손상, 부식성 식도염 및 협착등이 있는데 이물섭취에 의한 경우도 많다. 이물섭취로는 주로 동전, 생선뼈, 닭뼈 및 의치등이 식도벽에 걸려서 천공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천공은 이물자체가 일으킬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이물을 제거하기 위해 내시경조작을 할때에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저자는 이물을 오염한뒤 연하곤란이나 호흡곤란 없이 식도의 경한동통, 이물감 및 미열을 주소로 내원하여 X선 검사결과 식도이물 및 식도주위에 조영제 유출이 인지되어 응급으로 전신마취하에 식도이물 제거술과 경부중격동절개술을 시행하였으며 술후 7일째 식도조영술결과 좋은 효과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10 -

### CO<sub>2</sub> Laser에 의한 기관 및 후두협착증의 치료

연세의대

김기령 · 홍원표 · 김광문 · 정명현

서장수 · 최은창 · 진중부

만성 후두 및 기관협착증의 빈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한 치료로서 후두 및 기관 확장술이나 성형술을 비롯하여 단단문합술등, 여러종류의 방법들이 각각의 적응증에 따라 시행되어 왔지만 아직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1972년 Strong 과 Jako 가 후두질환에 CO<sub>2</sub> Laser 사용을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이비인후과영역에서 CO<sub>2</sub> Laser 는 새로운 수술방법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 Mihashi (1976), Lyons (1980) 등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후두협착증의 치료에 이용된 바가 있다.

저자들은 1982년 4월부터 1983년 3월까지 1년간 후두기관성형술 및 확장술로는 성공적으로 기도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4례와 후두암으로 반측후두절제술 및 성문성형술 (neoglottis) 을 받은 후 기도협착을 초래하였던 1례에서 수술현미경하에 CO<sub>2</sub> Laser 를 사용함으로써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1) 후두 및 기관협착의 치료에 Laser 를 이용한 술

- 7 -

air passage was performed by ventilation – bronchoscopy (84.3 %). Two of 38 cases expired.

– 8 –

#### A Clinical Study of Hoarseness

Wan Kyu Yoon, M.D., Kyu Mo Cho, M.D.,  
Ki Joon Song, M.D., Hong Soo Kim, M.D.  
*Dept. of Otolaryngology, School of Medicine,  
Jeonbug National University*

Hoarseness is the most common and early symptom in laryngeal diseases.

A clinico –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on 228 cases with chief complaint of hoarseness at the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Jeonbug National University during the past 3 years from January 1980 to December 1980.

1) The number of the patient with hoarseness were 228 cases (2.3 %) among total outpatient of 10110 cases.

2) Among the 228 cases with hoarseness, male were 115 cases and female were 113 cases, so sex ratio was nearly same.

3) The underlying diseases causing hoarseness in order of frequency were acute laryngitis 43 cases (18.9 %), chronic laryngitis 36 cases (15.8 %), vocal nodule 30 cases (13.2 %), vocal polyp 30 cases (13.2 %), vocal cord paralysis 26 cases (11.4 %), laryngeal carcinoma 18 cases (7.9 %) and laryngeal tuberculosis 15 cases (6.6 %). There were other diseases of larynx in 30 cases (13.2 %).

4) The incidence of age distribution in order of frequency were 4th decade (26.8 %), 3rd decade (18.9 %), 5th decade (17.1 %), 2nd decade (15.8 %) and 6th decade (9.6 %).

5) The duration from onset to consultation in order of frequency were 11 days – 1 month (22.8 %), 1 month – 3 months (19.7 %), 3 months – 6 months (18.9 %), within 10 days (13.6 %), 6 months – 1 year (13.2 %), 1 year – 3 years (7.9 %) and 3 years over.

6) The duration from onset to consultation for underlying diseases were as follows ; acute laryngitis was within 10 days, chronic laryngitis was 3 months – 6 months, vocal nodule was 1 month – 3 months, vocal polyp was 3 months – 1 year, vocal cord paralysis was 11 days – 1 month.

7) Associated symptoms with hoarseness in order of frequency were sore throat (25 %), sputum (8.8 %), swallowing difficulty (7.9 %) and dyspnea (6.1 %). But 84 cases (36.8 %), there were no other symptoms except hoarseness.

– 9 –

#### A Case of Esophageal Perforation due to Foreign Body

Gie Hwan Hong, M.D., Kyu Mo Cho, M.D.,  
Ki Joon Song, M.D.

*Dept. of Otolaryngology, Jeonbug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Esophageal perforation occurred rarely, but it leads to a high mortality and morbidity. Main cause of esophageal perforation in Korea is instrumental perforation in patients with lye stricture of esophagus during diagnostic endoscopy or therapeutic bouginage.

A case of 25-year-old male patient entered to outpatient clinic. Chief complaints were mild pain at swallowing, mild fever elevation and chest tightness with radiating pain to shoulder and interscapular region for 1 day.

On the X-ray film with barium soaked cotton piece in esophagus, it was revealed that foreign body (fish bone) had been located on the level of 2nd vertebra with leakage of barium to mediastinum.

The foreign body was removed with endoscopy in Dept. of otolaryngology, and cervical mediastinostomy was performed in Dept. of thoracic surgery.

– 28 –